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해산할 힘이 없도다

(사 37:1-7)

## There isn't strength to deliver children

(Is. 37:1-7)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데 산모의 힘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샤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사 37:3).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는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며 유다의 신앙개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산헤립과 랍사게에게 죽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산헤립 왕은 자신의 부하에게 칼을 맞아 죽고, 랍사게는 완전히 패하여 돌아갔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꿈꾸던 신앙개혁을 완수하게 되며 만국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사 37:1).

히스기야 왕은 조국의 현실 앞에 홀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이 베옷을 입자,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저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베옷은 조국의 운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슬픔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시편 51:17).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샤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샤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합니다. 이샤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사 37:21).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관계와 미래가 불확실하여 마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을 때, 간절히 기도하므로 꿈을 해산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f a woman who delivers a child does not have enough strength, that situation must be the worst pain and misery.

King Hezekiah and the Jewish people just had the same situation like this. "They told him, "This is what Hezekiah says: This day is a day of distress and rebuke and disgrace, as when children come to the point of birth and there is no strength to deliver them"" (Is 37:3).

The king of Assyria, Sennacherib attacked Judah but Judah did not have any power to defend against them. King Hezekiah who was one of the three sage kings had a very deep faith. Before God, he practiced honestly and dreamed the reformation of faith in Judah. However, before he accomplished his dream, he was consigned to death by Sennacherib and Rabshakeh. It is just like a woman who does not have strength to deliver a child.

And then, surprisingly there appeared the opposition of war. King Sennacherib was stabbed to dead by his official and Rabshakeh was defeated completely. In contrast, King Hezekiah experienced an astonishing revival, his dream of faith reformation was accomplished, and he could become a high and noble man in the world nations.

How did this kind of the opposition of war break out?

"When King Hezekiah heard this, he tore his clothes and put on sackcloth and wen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37:1).

The King Hezekiah suddenly got up by facing the reality of homeland, and changed his clothes with sackcloth. right after he put on sackcloth, and his secretaries did too. Changing their clothes with sackcloth meant that they want to repent. The sackcloth was the symbol of sorrow and repentance of which their homeland's destiny reached this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all of their sins. To start coming and repenting before the Lord was to start the great opposition of war.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It is God who never despises a broken and contrite heart (Ps 51-17). The broken and contrite heart should really become the method to solve our sacrif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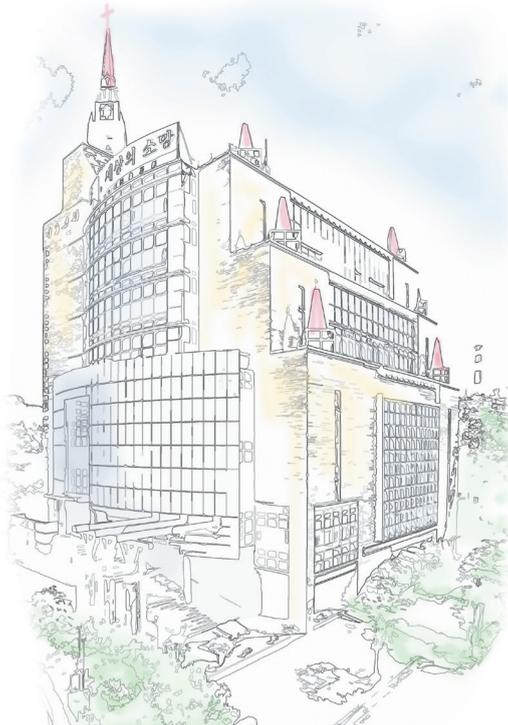
King Hezekiah knew the power of prayer. That's why Hezekiah asked the prophet Isaiah to pray God. Th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received God's amazing response. When the prophet Isaiah prayed, King Hezekiah pray before God too.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because you have prayed to me concerning Sennacherib King of Assyria " (37:21).

God heard Hezekiah and worked for them. Because God heard this, it had been done.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sincerely pray to God, God takes an active hand in our problem. In our family, and at work, when we are just like a woman who does not have strength to deliver a child because our relation and future are not certain, by praying earnestl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fulfill our strength to deliver a drea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5 사명자대회

# VIP초대 「새생명축제」 5일 앞으로!

## 10월 23일(금) 오전 11시, 25일(주) I II III부 예배, 찬양예배 시 성경 8번째 통독, 자유키도 연인원 1,982명 참여

2015년 사명자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이다.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금)까지 자유키도참여자는 총 1,982명이며 성경읽기는 총 8독을 진행하고 있다.

50일동안 계속되는 자유키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기도, 다락방이 공동으로 하는 다락방기도에 동참함으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란다.

특별히 11월 16일(월)~21일(토)까지 새벽 5시부

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주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또한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 중에 있으며 Life5운동 전도전략 가운데 이번주는 초청방문을 진행하며 이번 23일(금) 오전 11시, 25일 주일예배, 찬양예배 시 그 동안 작정하여 품고 기도하던 VIP를 초청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새생명축제가 되길 바란다.

##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시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린다. 올해 찬양대 헌신예배는 주일 찬양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예루살렘 찬양대와 아

멘관현악단, 그레이스앤드벨 콰이어와 수요일예배를 담당하는 호산나, 은빛, 시온 찬양대가 그 동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대	곡명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팀파니
가브리엘	주 사랑 끊을자 없네	최형열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할렐루야	주안에 하나되어	오광환	고성진	김현정 11	김양언	
임마누엘	우리 눈 여소서	양춘경	류충기	김윤지	양경실	
베들레헴	아버지시어	이동만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예루살렘	There is a Light	신현일	심삼희		이승민	
호산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전화진	구민영	김현정 15	홍혜란	
시온	기뻐하리	이영기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은빛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관규	박래경	김현정 15	홍혜란	
그레이스앤드벨콰이어	The Prayer	안홍희	송재월			
아멘관현악단	Oh, I want to know You more	김혜언	임범창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 10월 30일(금) 오후 6시 / 삼성동 베어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지속적 갱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발족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

목사)가 주관하는 기념예배 및 세미나가 오는 10월 30일(금) 오후 6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베어홀(전화 2059-1601)에서 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시상: 10월 18일(주) 2부예배 시 / 발표: 찬양예배 시

2015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본선이 10월 16일(금)에 있었다. 시상은 오늘 2부예배 시, 발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교육 1국(개인)

- 대상: 권예지, 이혜나
- 민음상: 최시원, 노진철, 송하영, 손예진, 홍성현
- 소망상: 윤서진, 이예은, 한예송, 송하은
- 사랑상: 김기주
- 장려상: 우정서, 이정유

#### • 교육 1국(단체)

- 민음상: 초등1팀-박주원, 문영주, 강예원
- 소망상: 초등2팀-우정연, 장유선, 정은지
- 사랑상: 유치부-김하진, 서예준, 손예은, 김서연, 김범준, 이시우, 오선아, 김효은, 김창윤
- 장려상: 유년1팀-박서진, 최시원, 황휘성, 장유정, 박이진, 문영은, 김은송, 박세종, 박서연, 임세아, 김채연, 강주은, 박가을, 유년2팀-양병재, 심주하, 장한솔, 조연우, 손예진, 송하영, 이인애, 이원빈, 김석호, 정보희, 남모세

#### • 교육 2국(개인)

- 대상: 김미성1
- 민음상: 장정화, 박유진, 소망상: 김경자6, 사랑상: 장윤희2
- 장려상: 이응선, 유태한

#### • 교육 2국(단체)

- 사랑상: 직분자 양성부팀-김미성1, 김용환, 최예순, 권재현, 고유상, 강윤숙
- 장려상: 고등1팀-권소희, 이우진, 마승완, 이선우, 조영민, 고등2팀-이인표, 서운, 민희성, 이지현, 리브가 여전도회팀(이혜순 외 40)

#### • 영어암송(개인)

- 대상: 공지혜, 이영숙1
- 사랑상: 김연재

#### • 영어암송(단체)

- 민음상: 청년부-정상준, 김하림
- 소망상: 유년부-정현준, 박한서, 한예준, 김보겸, 김교진, 김동혁
- 사랑상: 중등2팀-이서주, 최서린, 김소람, 중등4팀-천예준, 이상민
- 장려상: 중등1팀-박혜민, 박혜린, 이유은, 김주희, 중등3팀-남사라, 윤영은, 장년부-장상국, 송영준, 백도환, 김진달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9)

#### (문 189)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답) 히브리서 2:17-18 말씀을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에 빠지지지는 않았다(히4:15).

역사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있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He was ‘not able to sin’ - Non potuit Peccare).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He was ‘able not to sin’ - potuit non Peccare). 이 두 대답은 모두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후5:21, 요1서3:5, 요8:46).

그러나 예수가 죄를 전혀 지을 수가 없다면 그가 받은 시험은 하나의 연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히4: 15-16)

히4:15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받은 시험을 똑같이 받았으나 죄는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심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을 뿐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 가령 어떤 애국자가 나는 나의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심리적 불가능이지 실제로 육신은 배신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위탁할 의지는 없으나 실제로는 끌려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슬프게 하거나 그의 뜻에 배치되는 악마에게 끌려가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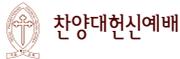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죄를 지을 개연성은 있으나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는다. 시험은 참으로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전능과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시험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 연합함을 체휼하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므로 대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한 자격자임을 보여 주셨다.

(다음 주 계속)

##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

### 20일(화) 오전11시 8층 만나홀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가 대치1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20일(화) 오전11시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고자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대치1동 주민 중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및 경로잔치를 갖는 행사로 우리교회 8층 만나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찬양대헌신예배

# 찬양대 헌신예배와 찬양축제



박정선 장로 (찬양위원장)

오늘 찬양예배는 찬양대 헌신예배로 찬양축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 : 21)

우리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최선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껏 찬양대 헌신예배의 틀을 바꾸어 서울교회의 10개 부서의 10개 찬양대 모두가 참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축제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더욱이 은빛찬양대원 모두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더욱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대회

#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



김순진 집사 (13교구)

올해도 서울교회의 자랑인 '사명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0인 전도대에 들어와 두 번 째 맞는 이번 사명자대회는 제게 더 특별합니다. 오래 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부족하고 게을렀으며 나약했던 나를 귀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작년 4월 16일, 꿈에도 잊지 못할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전도자를 꿈꾸는 세계 남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을 실은 채 물속에 잠겨가는 배를 보며 내가 외치지 않으면 못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채 저렇게 물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도학교를 마치고 70인 전도대에 들어간지 며칠 지나 6월 말쯤 찬양예배 때 인도 선교보고를 듣고 나오다 한티공원에서 자녀와 함께 가던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따님이 너무 예쁘네요. 하얀 모자가 잘 어울려요."하고 말을 건네며 "몇 학년이예요?" 하니 딸은 6학년 아들은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참 잘 생겼네요. 저는 여기 서울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세요?"하니 그렇지 않아도 인도에서 귀국하여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인도선교보고를 듣고 나왔는데 '전도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는구나'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맘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몹시 설레었습니다. 그 분은 고맙게도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맥을 방문했는데 인도 뿌네 한인교회에서 막 세례를 받고 귀국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주일예배는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넛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이들만 집에 있어 현관에서 기도해주고 왔고, 그 다음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또 안 계셔서 다른 대

상자를 주고 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곧 교회에 나올 것 같던 VIP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자주 미뤄지니 애가 타고 조금 낙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슬러 다락방으로 인도하기로 마음 먹고 즐기게 찾아가고 권면하였더니 의외로 다락방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관계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셔서 등록 했는데 그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예배와 다락방모임에 열심히 나오시고 자녀들도 교회학교에 나오고 가끔씩 주일 예배도 드리십니다.

올 2월 어느 토요일에는 친정어머니를 모신 추모공원에 가며 '오늘은 VIP들을 못 찾아 가겠네'라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가던 미장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도에서 귀국한 가정이 교회를 찾았다고 알려주시어 주일에 만나 등록하셨는데 인도 뿌네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등록시킨 VIP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니 이와 같은 만남이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에 새삼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아서 주일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 올해 초 다락방 공동 기도제목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 전도하기'를 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가장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특별히 다락방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자의 기도

# 사용하여 주소서

김수원 권사 (3 교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판단하며 행하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 이 생명 허무와 방탕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서울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영희 권사(9교구)**

사랑하는 최무순 권사님,  
아름다운 이 가을에 권사님과 이렇다 할 애뜻한 말 한 마디 못해본채 권사님을 떠나 보내게 되어 솟아오르는 이별의 슬픔을 가을 길 없습니  
다. 서울교회를 창립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시절, 권사님과 함께 반포동 성전  
옥상 천막으로 지은 식당에서 성도님들의 주일  
점심 식사준비를 위해 토요일마다 함께 했던 시  
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여름이면 찜통  
에 들어앉은 듯한 더위에 땀이 비오듯 했고, 겨  
울이면 천막 틈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언 손  
을 녹여가며 일하던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오지  
않을 그 때가 새삼 그립습니다. 토요일이면 만사  
를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오신 권사님은 언제나  
권사님 생각보다는 남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셨  
고, 조금의 수고에도 '힘들지, 수고 많았어' 하시

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를 지켜주신 권사님! 오래 옆에 계시 줄 알았는  
데 이렇게 홀연 듯 떠나시다니요...

덩치만큼 호탕한 성격으로 권사님들 사이에  
덕을 세우시고 교회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  
며 사셨던 권사님, 손자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  
을 잘 물려주시고 자녀들에게 짐을 지게하고 싶  
지 않다고 하시더니 훌쩍 가버리셨네요. 남편 집  
사님의 오랜 신앙투석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셨  
을텐데 내색 한 번 안하시고 늘 헌신의 삶을 사  
셨던 권사님, 이제는 교회 걱정 마시고 눈물 없  
는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세요.

이제 우리도 곧 아버지 집으로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신 권사님의 빈자리를 채우  
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최무순 권사님, 권사님이 서울교회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설교사역도고팀**

**하나가 된 설교사역 도고 1,2,3팀**



**이경희3권사 (도고3팀)**

작은방에서 설교사역 도고를 위  
해 매주 만났지만 10월1일은 특별  
했습니다. 단단한 벽돌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고 1,2,3팀 함께 야외모  
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가뭄속의  
단비를 맞으며 감사함으로 출발하  
였습니다. 어찌그리 감사한지요.

첫 번째 관람은 경복궁내에서 가  
장 아름답다는 경회루였습니다. 북  
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연못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최고의 차경으로 평가받기 부족하지 않았습  
니다.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우리의 모습이 한장 한장  
기억될 수 있도록 순간을 남기고 박물관에서 점심식  
사 후, 두 번째 관람  
장소인 청와대로 향  
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진 춘추관에서  
철저한 검색대를 통  
과한 후 청와대관람  
을 환영하는 전통문  
양이 담긴 예쁜 지  
갑을 선물로 받았  
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계신 곳이라서인지 깨끗하고 엄숙  
했습니다. 곳곳에 서 있는 경비병들은 자랑스런 대한  
국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  
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한 하루의 시간들은  
곳은 날씨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주안에서  
의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  
다.

몸이 불편한 권사님께서도 다른 분들이 불편하  
지 않도록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밝  
은 모습을 보여주심을 보고 주님의 향기를 느꼈습니  
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권사님들  
의 모습은 가장 어린 저의 마음에 큰 선물로 다가왔  
습니다. 설교사역 도고부를 통하여 우리가 곧 사명자  
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야외모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박영준목사님, 박두  
호장로님, 준비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  
들 감사드립니다.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월19일(월) 제48차 한국기  
독교학술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20일(화) 한장충 이사회에 참여한다. 10월24일  
(토)전주대 역대총장 모임에 참여한다.
- 특담 : 이우리 성도 윤상호 성도 가정(16교구 이길  
재 집사 유영숙 집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도훈 집사 김희자 집사 가정  
황노전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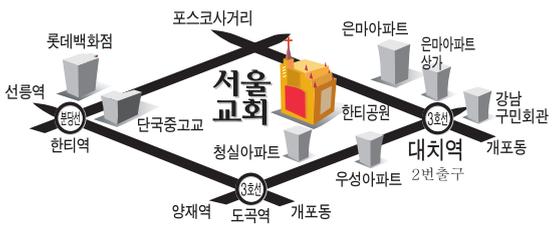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5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  
성된 종들이 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전도대상자(VIP)를  
10월 23일(금) 오전 11시, 25일(주) 새생명축제  
로 인도할 수 있도록
3.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